

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패턴 고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9.30. 매일경제신문은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년새 26배인데... 의심 사업 탐지 정확도는 9.2%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6년 새 544%, 적발금액은 2,582% 증가했는데,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는 9.2%, 집행부처 자체점검 적발률은 6.6%에 불과”한 반면, “직접 현장점검에 나가 확인하면 절반이 넘는 52.3%가 적발”되고 있다고 하면서,
 - “정부는 1만 3,000여건의 ‘역대 최대 현장점검’을 내세웠지만, 정작 부정수급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 증원은 23명에 그쳤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 - 또한, “기획예산처의 ‘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’에 따르면, 기획예산처가 1,014개 세부사업을 평가한 결과 ‘정산추진’ 판정을 받은 사업은 34개로 전체의 3.35%였다”고 하면서, “보조사업 전반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해야 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①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(e나라도움)의 모니터링 패턴을 고도화해 오고 있습니다.
 - 가족 간 거래, 급여성 경비, 지출 증빙 미비 등 부정수급 유형별로 모니터링 패턴을 운영하고 있으며, 매년 현장점검 참가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니터링 패턴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패턴을 수정·보완하고 있습니다.
 - *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 수 : (’19) 59개 → (’25) 71개

② 부정수급 의심사업 적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, 관련 인력·조직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'25년까지는 e나라도움을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해, 해당 부처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건이 합동현장점검(기획처도 참여)을 실시한 건보다 많았고, 해당 부처의 자체점검 과정에서 소극적인 대처 등으로 실제 적발건수가 적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.

* '25년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10,780건을 대상으로, 부처 자체점검은 10,265건(675건 적발, 6.6%), 합동현장점검은 606건(317건 적발, 52.3%) 실시 (점검 건수: 동일 건에 대한 복수의 점검 횟수 포함)

○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, '26년에는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」('26.3.10)에 따라, e나라도움을 통해 추출된 '전체 부정수급 의심사업 6,540건'에 대해 모두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늘어난 합동현장점검 대응 등을 위해 기획예산처의 임시조직을 정규 직제화* 하였으며, 유관기관(한국재정정보원) 인력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보강할 계획입니다.

*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(정원 5명) → 국고보조금관리단(정원 26명, 7.14 시행)

③ 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e나라도움('17년 개통)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AI·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 등 변화하는 행정업무 여건을 반영하여 부정징후 모니터링 등 보조금 관리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'30.1월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'26.6~10월 업무절차재설계(BPR)·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행 중

④ 부정수급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○ 「'2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」에서는 「집행 효율성」을 평가하기 위해 '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'을 하위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하였습니다.

○ 향후,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규모와 정도에 상응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⑤ 앞으로도 기획예산처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국고보조금관리단	책임자	과 장	이원경 (044-214-3430)
	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김병철 (bckim8123@korea.kr)
	재정성과국	책임자	과 장	박주언 (044-214-3230)
	성과제도혁신과	담당자	사무관	정유정 yur igip7@korea.kr